

인천시 망향의 배 행사 해설안

이시우

1. 들어가는 말

우리 몸의 중심은 어디일까라는 질문에 대해 어떤 이는 ‘심장, 뇌’라고 답할 것이다. 박노해 시인은 이 질문에 대해 ‘아픈 곳’이라고 답한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어느 한 곳이 아프면 모든 신경이 그곳에 집중되고 아픈 것이 치유될 때까지는 몸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몸의 중심이 아픈 곳이듯이 사회의 중심도 아프고 소외된 곳이다. 또한 세계의 중심도 전쟁과 기아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아픔이 있는 곳이야말로 사회와 세계의 문제가 집중된 곳이다. 그 문제가 풀릴 때 사회와 세계의 모순이 해결될 것이다.

2. 실향의 아픔과 귀향의 완성

2000년 이북5도민연합회 회장에 의하면 월남실향민이 500만이고 이에 기초해 정부는 남에서 태어난 2, 3세대를 포함해 800만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의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북한인구 2명 중 한명이상이 월남했다는 이야기여서 의심을 샀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39만 명, 85만 명으로 정확한 통계도 혼란스럽다. 그러나 500만명이 아니라 단 한명이라도 실향의 아픔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2020년 전세계 난민 수 7천950만 명, 2021년 8천240만 명으로 세계인구 100중 1명이 난민이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는 인류전체의 문제이다.

세상은 집과 길, 둘로 나뉜다. 집을 나서야 길에서 세상을 만날 수 있고 세계 속에서 나를 깨달을 수 있지만 깨달음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다. 선조들은 출가와 귀가, 출향과 귀향의 관계에 대해 옛이야기로 교훈을 남겼다.

쥐 사위 찾기라는 옛날이야기가 있다. 쥐 아버지는 귀한 자기의 딸을 가장 강한 자에게 시집 보내기 위해 길을 떠난다. 해를 찾아가자 해가 말한다. 내가 세상에 최고 강한 자이지만 구름이 가리면 나도 힘을 쓰지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구름을 찾아갔더니 구름은 자기가 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자이지만 바람이 불면 나도 힘을 쓰지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바람을 찾아갔더니 자기가 구름도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강자이지만 돌부처만은 자기도 속수무책이라고 했다. 그래서 돌부처를 찾아갔더니 자기가 어떤 바람에도 꿈쩍하지 않지만 쥐들이 내 발밑의 흙을 파면 쓸어 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쥐 아버지는 세상의 강자가 사실은 자기 고향의 쥐라는 사실을 깨닫고 쥐 사위를 맞아들였다는 이야기다.

자기를 부정하고 집을 나섰지만 집으로 귀환해서야 깨달음과 지혜가 완성된다. 실향민에게 통일은 귀향이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다는 한반도의 통일의 열쇠를 풀었을 때 비로소 실향은 귀향이 된다.

영화 마션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은 집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강의한다. 우주에서 위기를 만나 죽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겐 두가지 길이 있다.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서서히 죽어가는 길과 살아서 집에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길이다. 만약 결심했다면 계산하라. 그리고 한 가지를 해결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를 해결하라 그렇게 하다보면 당신은 집에 돌아와 있을 것이다.

1. 결심

왕양명은 지행합일이라고 했지만 안다고 해서 곧 실천되지는 않는다. 아는 것을 넘어 결심할 때만 행하게 된다. 따라서 해겔은 결심하지 않은 자유는 아무런 자유도 아니라고 한다.

2. 계산

$1+1=2$ 를 두고 생각해 보면 계산은 차이나는 것을 동일하게 만든다. 오른쪽의 2는 오직 하나이지만 왼쪽의 $1+1$ 은 $2+0$ 을 비롯해 무한하다. 그래서 계산은 유한과 무한을 통일시키고 하나와 전체를 통일시킨다. 우리는 수많은 변수를 계산을 통해 원하는 하나의 목표로 통일시킬 수 있다.

3. 순서

공자는 춘추에서 ‘일이 순서를 얻으면 그것을 예(禮)라 한다’고 했다. 리(理)가 목적이라면 예는 목적의 실현이다. 목적의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서라고 단언하고 있다. 아무리 계산을 잘 해놔어도 순서가 엉키면 목적은 실현되지 못한다.

이 원리에 따라 결심이 섰다면 그 다음으로는 한강하구와 전체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셈을 해보자. 전체란 세계다. 유라시아체계에 나아가서 세계체계는 한강하구체계 구석구석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3. 한강하구와 세계전체를 하나로 보기

유라시아의 패권이 한반도로 요동쳐 올 때마다 이곳은 가장 먼저 수난과 항전으로 민족의 운명을 예고해 온 역사와 문명의 나침반이었다. 대륙의 패권을 꿈꾸던 몽골기병에 밀려 고려 고종이 한강하구의 승천포를 건너던 순간이나, 근대 제국주의 열강, 프랑스 함대가 한강하구를 지나 양화진에 닿았을 때에나, 미국함대가 초지진에 상륙하던 때에도, 그리고 인천상륙작전 전후로 무고한 민간인이 학살되던 한국전쟁의 아수라에서도 강화는 어김없이 예리하게 유라시아 지정학의 축소판이었다. 역사의 파도를 해일로 맞고, 문명의 갈등을 전쟁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아픔은 경관으로 남아 우리의 시야에 기록된다.

석모수로 오른편으로 보이는 망월벌판은 대몽항쟁을 위해 강화도로 천도한 고려정부가 국가적 규모의 간척 사업을 한 간척지이다. 이 너른 벌판이 유라시아체계에 대응한 유적인 것이다.

염하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기록에는 모두 바다를 뜻하는 말로 표기되어 있었다. 그런데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작성한 해도에 히비에르 살레(Rivière Salée), 짠 강이라고 표기했고 일본 해군성이 프랑스에서 이 해도를 입수하여 일본어로 번역 출간하는 과정에서 염하鹽河가 되었다. 유라시아제국주의체계의 강압이 작용한 흔적인 것이다. 신미양요당시 미군의 상륙과정에 대한 경험은 지금까지 계승된 미군의 상륙전 교리에 반영되었고 그 교리에 따라 염하에서는 매년 한미연합상륙전연습이 진행된다. 그리고 정전협정과 정전협정부속합의서는 현재 한강하구항행의 규칙을 확정했다. 분단을 상징하는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의 철조망은 정전협정 13항 13목의 위반이지만 67년 12월 24일 문산지역에 설치된 이래 68년 비무장지대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1970년부터는 김포 고촌면에서 인천시계까지 54km에 걸쳐 설치되었다. 강화군은 1974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다. 1978년 강화전역에 철책선 첫줄이 완공되었다. 이중철책은 1983년, 일부구간의 삼중철책은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설치되고 있다. 교동은 1997년 해안가에 25.5km의 철책이 설치되었다. 이 철조망은 하버드대 피셔교수가 고안하고 맥나마라 미국방장관이 승인하여 추진한 베트남전쟁 당시 17도선에 설치되었던 맥나마라 장벽이 그대로 한국에 적용된 것이었다. 고엽제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살포되

었다. 대전차장애물인 용치는 박정희대통령이 연평도와 백령도에 서해도서 사수작전을 명령하면서 대만 금문도를 시찰하여 배워온 것이다. 금문도의 용치는 미군고문의 지휘로 1954년부터 설치된 것이었다. 이는 1938년 독일제국군이 네덜란드, 벨기에와 접한 독일서부장벽, 일명 지그프리트선에서 사용한 대전차 장애물이었다.

이처럼 우리 눈에 띄는 경관들은 유라시아와 세계체계가 한강하구에 강제로 이식시킨 구조들인 것이다. 따라서 한강하구에 항행이 금지되었던 배를 띄우는 것은 커커이 쌓인 세계체계의 제약을 넘어서는 일이다. 고난을 전망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야만을 지혜로 만들어 낼 모든 역사의 유전자가 한강하구엔 축적되어 있다.

한강하구 배 띄우기의 시작

비무장지대사진작업을 하며 정전협정을 공부하게 된 필자는 정전협정 1조 5항 한강하구항행조항을 알게 되었다. 2000년 6월 25일 필자는 선후배예술가들과 합심하여 처음으로 한강에서 서해로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를 시작했다. 처음에 반신반의하던 분들에게 정전협정을 펼쳐 ‘한강하구는 민간선박에 이를 개방한다’는 규정을 보여주자 분위기가 반전되어 ‘그럼 뗏목이라도 띄우자’고 해서 성사된 행사였다. 그런데 이때 국방부로부터 한강하구는 유엔사허가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모두가 놀란 기억이 생생하다.

그래서 2005년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를 준비하면서는 유엔사를 직접 만나기로 계획했다. 그리고 당시 유엔사 2인자였던 캐빈 매든대령과의 만남이 성사되었다. 캐빈 매든은 우리 앞에서 ‘한강하구는 민간선박이 항행할 수 있고 우리들의 행사는 가능할 뿐 아니라 원더풀한 행사’라고 칭찬까지 했다.

우리는 고무되었고 언론사에 ‘한강하구에 민간선박 항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유엔사가 인정했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알렸다. 다음날 캐빈 매든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자기 말을 오해 한 것 같다고 했다. 자기는 인정한 적 없고 선박항행은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유엔사의 허가권이 어떤 근거에 입각한 것인지를 물었다. 그러자 대령은 정전협정 부속합의서 한강하구항행수칙에 항행선박은 유엔사에 등록한다는 조항을 읽어주며 그것이 유엔사의 허가권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선박들은 이미 등기와 등록을 마친 선박들인데 유엔사에 등록을 받으라니 유엔사가 정부냐. 지금 대령님이 하시는 말씀은 유엔사를 미군정 같은 정부로 오해하게 할 수 있는 논쟁적인 표현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매든 대령은 난처해진 듯 ‘어쨌든 정전협정에 대한 해석은 유엔사만이 할 수 있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이후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는 한강하구에 한 번도 진입하지 못한 채 그 입구까지 만을 항행하는 행사로 굳어졌다. 그래서 유엔사가 말하는 ‘허가권’ ‘관할권’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진 여정이 시작되었다.

유엔사관할권

설명의 편의를 위해 시간순서대로 유엔사주장의 근거를 요약해보자.

인천상륙작전으로 북한의 점령이 눈앞으로 다가오자 1950년 10월 7일 유엔총회는 북한통치를 염두에 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설치를 결의했다. 그러나 1950년 10월 12일 열린 언커크임시위원회는 이 조직이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북한통치권을 유엔사에게 임시로 위임한다. UNCURK위원단은 11월 26일 서울에 도착하여 활동하다가 12월에 부산으로 이동했다. 따라서 UNCURK가 서울에 도착한 11월 26일에 유엔사는 언커크에 모든 통치와 민사행정권을 이양했

어야 했다. 그러나 그 ‘임시’는 아무 근거없이 지속되었고 기정사실화되었다. 그리고 다시 1954년 38선 이북지역 행정권이양 때 부활했다.

1954년에 이르러 유엔사령부는 원칙적으로 38선 이북지역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그 작은 지역에서 터져 나오는 민원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해 행정권만 한국정부에 이양하였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54년 유엔사의 한국정부로의 행정권이양시 유엔사령관 헐(J. E. Hull)이 이승만에게 보낸 공문에는 38선을 유엔사의 군사점령지라고 표현했다. 1954년 9월 1일 한미 간의 마라톤협상에서 이승만정부 변영태 총리는 ‘한국은 행정권뿐만 아니라 주권을 가져야 한다. 이곳은 한국 영토이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럼에도 주권을 회복하는데는 실패했고 행정권을 이양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1963년 7월 1일자 주한미대사관이 미8군에 보낸 전문에도 유엔사령부가 대성동의 행정권을 한국정부에 위임하는 문제에 대해 남측비무장지대는 유엔사령관의 점령지역이며, 행정권은 유엔사령관의 권한이고, 한국정부에 일부라도 위임되어서는 안된다는 국무성의 지시가 분명히 밝혀져 있다.

9.19남북군사합의서

정전협정은 한국이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어떤 법적지위도 적용되지 않으나, 다른 대안이 없어 정전협정, 정전협정부속합의서, 특히 유엔사규정을 존중하고 준수해온 상황이었다.

그런데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서의 한국 내 비준발효로 국내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서 정전협정에 모든 것을 의존하던 상황변화가 일어났다. 9.19남북군사합의서 붙임5 규정은 기존 정전협정부속합의서의 한강하구항행수칙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당사자가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대통령님의 말처럼 이는 실질적 종전선언이라고 할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남북정전협정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정전협정에 의해 유엔사의 결정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해 마련한 것이다.

이는 9.19남북군사합의서 붙임5에 따라 한강하구수로조사가 시작된 첫날 현장 상황에 맞게 규정의 변경을 직접 결정함으로서 9.19합의서의 위력이 입증되었다. 정전협정부속합의서와 유엔사규정551-4에 따르면 쌍방은 부표등 표식물을 강 위에 설치할 수 없고, 서로 연락·통신할 수 없으며, 물건을 쌍방의 배에 옮겨 실을 수 없고, 무엇보다 사람이 상대방 배에 옮겨 탈 수 없다. 그러나 수로조사가 시작되자 짙은 해무 속에서 남북이 만나는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부표를 설치했고, 남북간 서해통신선을 통해 통신을 했으며, 강 위에서 인사를 나누는 등 소통했고, 북측의 물자와 사람이 남측 선박으로 옮겨 태워졌다. 공동조사니 이런 장면의 연출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자연스러운 장면이 탄생하기까지 우리가 돌아온 길은 엄청나다. 현장의 특수상황에 따라 붙임5규정은 융통성 있게 적용되었고 이에 대한 북측의 반대는 전혀 없었다.

수로조사선박이 정부선박이긴 하나 군용선박은 아니었으므로 이는 한강하구 민간선박항행에 우리의 결정권을 확인한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이러한 자신감은 정부, 한강하구접경지자체, 시민단체마다 한강하구 공약이 봇물을 이루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9.19남북합의서는 다른 합의서와 달리 비준되어 남북합의서 24호와 25호로 대한민국전자관보에 게재됨으로서 발효되었다. 국내법령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조약이 발효되면 조약의 이행을 위한 이행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듯 남북합의서 24호, 25호의 이행법률의 성격을 갖는 비무장지대법이 발의되었고

한강하구법과 서해5도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한국을 위해 피를 함께 흘린 동맹이고 역대 한국정부는 해마다 이에 정중히 감사를 표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유엔사가 주권을 제약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유엔사와의 협조를 유지하되 궁극적으로는 한강하구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의 국력에 걸 맞는 일일 것이다.

한강하구 법

풍차를 통하여 바람의 흐름을 이용할 수 있지만 풍차를 가진 자가 바람의 흐름을 점유하는 것은 아니다. 배를 통하여 강물의 흐름을 이용할 수 있지만 배를 가진 자가 물의 흐름을 점유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이용할 뿐이다. 풍차가 차지하는 면적만큼의 바람은 한 사람이 이용할 때는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고, 배가 차지하는 면적만큼의 수류를 한사람이 이용하는 동안은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지만 이용이 끝나면, 바람과 물결이 스쳐 지나가면 그 바람결과 물결은 다른 사람에 의해 곧바로 이용될 수 있다. 땅의 비옥도와 관련 황폐화의 책임은 점유자에게 있다. 이점이 권리의 발생에 있어서 땅과 물의 자연적 차이이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산맥이 아닌 산경에 의거해 제작되었는데 산은 사람의 생활과 문화를 가르고 강은 모은다는 사상에 기반하고 있었다. 헤겔에 의하면 '하천은 이전에는 자연적 경계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하천은 결코 자연적 경계가 아니고 그것은 해양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인간을 결합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헤겔은 여기서 산업과 상업의 염두에 두고 있다. 산업은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영리를 초월하여 토지라든가 시민적 생활의 제한된 범위에 고착하지 않고 개척·모험의 요소를 드러내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상업도 그 세계사적 의의를 발견하는 것이다.

육지인 비무장지대에 대한 이용은 그 점유와 분리되지 않지만 한강하구에 대한 이용은 점유와 분리된다. 따라서 유럽의 주요국경하천제도는 공동관할권으로 정착되었다. 따라서 강의 자연적 속성과 남북간 평화적 이용의 개념은 추상법과 국제법 차원에서 잘 일치한다.

9.19군사합의서 붙임5에는 남북이 각각 통행검사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유엔사와의 관할권협의이전이라도 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더하여 법제도가 정비되고 민간인들의 민원요구가 폭증하면 군 조직인 유엔사가 이러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1954년 38선 이북지역에 대한 행정권이양을 유엔사가 먼저 제기하고 추진한 상황과 유사해진다. 한강하구법이 9.19합의서의 이행법률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동시에 한국의 관할권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를 것도 없어 보일 한강하구에 배가 오가는 풍경을 만드는 것은 수백년 동안 유라시아와 세계체계가 우리를 압박해온 과거를 벗고, 우리의 상상력에 의해, 우리의 의지에 의해, 우리의 결정으로 배를 띄우고 남북으로 고향을 오갈 수 있다는데서 큰 의미를 가진다. 우리가 고통의 나락으로 내몬 생각지도 못한 변수까지 전체를 계산에 넣고, 순서를 잡아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빨리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귀향이 통일이요, 통일이 유라시아로의 비상이며, 그 비상이 일상일 것이다.

이슬이 모여 강을 이룬 것이라면
풀잎에 담던 세계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을 담으리라
눈물이 모여 강을 이룬 것이라면
두 눈에 머금던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을 머금으리라

마음이 모여 강을 이룬 것이라면
가슴에 품었던 뜻보다 더 큰 뜻을 품고 흐르리라.